금주일언

땅처럼 성내지 말고 산과 같아서 동요하지 말라. 참다운 사람은 번뇌가 없어 세상의 나고 죽음이 끊어진다.

법구경

동대신문

제1436호 2006년 (불기 2550년) 11월 27일 월요일

건학 100주년 민족과 함께 한 100년 세계를 향한 100년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 http://www.dgupress.com

총장 후보 마감결과 6명 후보 접수

다음달 1일 총추위 3차 회의에서 후보자 3명 투표 선출

지난 24일 열린 총추위 2차회의.

제16대 차기 총장이 다음달 중순경 이사회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열린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위원장=지홍스님, 이하 총추위) 2차회의에서는 오영교 전 행정자치부 장관, 한태식(선학) 교수, 최창술(선학) 교수, 이황우(경찰행정학) 교수, 김보환(경찰행정학) 교수, 한진수(회계학) 교수 등 총 6명의 후보자를 확정했다.

총장후보자는 지난 16일까지 각 언론매체 초빙공고를 통해 이뤄졌는데 후보자 접수마감 결과 교내인사 5인과 외부인사 1인이 지원했다. 그러나 외부인사 1인이 서류미비로 인해 기권함에 따라 '외부인사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외부인사에 한해 접수를 23일까지 연장, 이후 오영교 전 장관의 지원으로 최종 마감됐다.

이에 따라 총추위는 이사회에 추천하는 총장후보자 추천인원을 외부인사 1인 포함 3인으로 하고, 총추위 위원 1인당 3표씩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따라서 총추위는 다음달 1일 10시 본관 5층에서 총장 입후보자 6명의 소견발표를 들은 뒤 총추위 위원 표결을 거쳐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할 예정이다.

총추위 규정에 따라 오영교 전 장관은 자동으로 후보로 추천되며, 교내 인사 5명 중 득표수에 따라 2인이 추천될 전망이다. 한 후보당 소견발표 20분, 질의응답 5분으로 예정돼 있고, 발표 순서는 오는 30일 법인사무처 회의실에서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이날 총추위 회의는 공개로 진행되며 인터넷 생중계로도 보도될 예정이다.

이사회에 제출하는 후보자 3인이 결정되면 총추위는 역할을 마치고 자동 해산된다.

한편, 24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이황우 · 한태식 후보의 경우, 지난 9월 이사장 영배스님이 밝힌 '교수회에서 직선제로 선출한 후보는 총추위후보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과 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대두됐으나 "후보 개인이 지원한 것으로 판단해 교수회의 의견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일단락지었다.

2차회의에 보고된 다른 사항에는 법인사무처장 임명에 따른 이상덕(정안스님) 위원의 총추위 위원직 사퇴가 있었다.

총추위 총장 후보선출과 관련해 교수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역량 검증 절차도 없이 외부인사를 필수로 후보자 추천에 포함토록 한 것은 법인 스스로 우리대학 구성원을 무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역차별적 조항"이라며 "법인은 직선제 총장후보를 총장으로 임명하고, 직선제를 거치지 않은 총추위 등록자들은 자진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현 기자
niitake@dongguk.edu

학생회 선거 내일(28일)부터

대의원 총회 "중선관위 불신임 물을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07학년도 학생회 선거가 내일(28일)부터 3일간 학내 곳곳에서 치러진다.

투표는 명진관 등 각 단과대 건물 로비에 비치된 총 25개 투표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야간강좌 재학생은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개표는 오는 30일 자정 본관 중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30일까지 진행된 투표에서 투표율이 50%에 미치지 않을 경우, 투표일을 하루 연장해 3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는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졸업준비위원회 △총대의원회 △문과대 △이과대 △법과대 △사과대 △경영대 △생자대 △공과대 △예술대 학생회장 후보자가 출마했다. 이 중 법과대와 사과대는 경선으로, 나머지 단위는 모두 단선으로 치러진다.

정산대와 사범대는 아직 선거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고, 불교대와 야간강좌는 입후보자가 없어 무산됐다. 한편 예술대 학생회장 선거는 다음달 5일부터 7일까지 이뤄진다.

▶관련인터뷰 4 · 5면

한편 지난 21일에는 '2007년 중앙선거 정상화'에 대한 건으로 대의원총회(의장=명창희 · 정보통신4)가 소집됐다. 대의원 57인이 참석해, 전체 과대표 212명 중 ⅓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성사되지 못한 이 자리에서는, 47명 대의원의 동의로 오늘(27일) 6시에 대의원총회를 재소집했다. 이는 '중선관위에 대한 불신임을 비롯한 선거정상화 방안'을 논의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에 대해 현 중선관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창우(전자공3) 대의원장은 "거수를 번복하는 미숙한 진행과 '소집일 일주일 전 공지'라는 회칙을 따르지 않은 대의원총회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주현 기자
niitake@dongguk.edu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오는 29, 30일 선거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후보자 등록이 지난 10일 엄태규(북한학과 석사 2학기) · 김효민(연극학과 석사 2학기)의 1개 조의 등록으로 마감됨에 따라 단선으로 치러진다.

오는 28일까지 선거운동이 이뤄지며 선거는 29일 오전 9시부터 30일 20시까지 이틀간 학술관, 문화관, 동국관, 원흥관, 교수회관, 명진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공용 연구실 일반대학원 원우 사용 △생활 연구 공간 확충 △각 건물별 무인 도서 반납함 설치 △알차고 신속 · 저렴한 각종 공연정보 제공 △강의실마다 공강시간표 부착 △박사과정 연구등록제 문제 해결 △이공계 실험실 안전문제 해결 △홈페이지 컨텐츠 강화 △정기적인 설문조사 △두리터 환경개선과 이용수칙 마련 △사립학교법 개정 노력 등이 있다.

"한 그루에 한 걸음씩" …

지난 25일 강호덕(산림자원학) 교수를 비롯한 우리학교 산림자원학과 학생 24명이 북한의 요청에 따라 메타 세콰이어 나무 200그루를 개성에 심었다. 앞으로 강교수는 산림황폐 방지를 위해 북한과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부 dgupress@dongguk.edu

공학교육 프로그램 세미나

공학교육프로그램혁신 세미나가 내일(28일) 오후 4시 원흥관 E103에서 열린다.

공과대와 정산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8일 1차 세미나에는 장금영 교육부 산학협력과 과장이 '우리나라 산학협력의 현주소와 정책방향'을, 박상민 산업자원부 산학기술인력팀 과장이 '공학교육 혁신 전략에 대하여'를 주제로 발표한다.

다음달 4일 열리는 2차 세미나에는 류지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이 발표한다.

만불봉안점안법회 열려

대각전 만불봉안점안법회가 지난 16일 10시 대각전에서 열렸다.

이번 법회는 우리학교와 동국대학병원+한방병원에 기부금을 전달한 이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한 행사로, 100만 원 이상 기부자들의 이름을 새긴 불상을 만들어 봉안했다. 이 날 1천2백만 원의 기부금이 모아졌다.

한편 지난 17일 조경학과 동문회(회장=한상현 · 79졸)는 후배사랑장학금의 일환으로 기부금 2억원을 약정하고 이 중 880만 원을 전달했다.

금주의 동국인

동국상상을 세계로 펼쳐가는 이승규 군

"우리나라를 떠나 외국에서 1년간 공부하며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큰 경험이죠."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어학연수를 생각해보았을 법하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교환학생을 통해 실현하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일년간 중국에서 어학실력을 향상시키고 그곳의 문화를 배우고 싶다는 이승규(중문2) 군. 그는 2007년 파견 교환학생에 선발되어 유학생활에 대한 희망에 한껏 부풀어 있다.

그는 국내에서 잘 알려진 대학은 아니지만 한국인의 수가 적고 생활환경도 대도시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교육환경이 마음에 들어 사천대를 지원하게 됐다고 한다. 더불어 지난 해 인도 여행을 다녀온 이후 오리엔탈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사천대가 티벳과 가까운 중국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매력적이었다고 한다.

"중국에서 전공 학점을 모두 채운 뒤 귀국 후 남은 1년간은 복수전공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힌 그는 이러한 장점 때문에 군복무 시기부터 교환학생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성적이 좋지 않아 불합격을 걱정하던 그에게 교수님과 선배들의 격려는 큰 도움이 되었다.

현재 복수전공으로 광고홍보학을 예정하고 있는 이승규 군은 거대한 규모에 비해 우리나라보다 실력이 뒤쳐지는 중국의 광고 시장 상황을 설명하며, 두 가지 전공을 연계해 졸업 후 중국 내 광고업계에서 일하고 싶다고 꿈을 밝혔다.

그는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동국인들에게 학점 뿐만 아니라 어학에 투자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특히 주변 친구들이 우리학교 국제교육원 유학생들과 서로 한국어와 중국어를 가르쳐주며 회화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이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꿈을 위해 세계로 나아가는 이승규 군. 중국에서 시작될 새로운 생활이 그의 성장에 값진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담〉
ssundam@dongguk.edu

건학 100주년 기념광고 한겨레 광고대상 수상

우리학교 건학 100주년 기념광고 시리즈가 한겨레 광고대상 대학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제9회 한겨레 광고대상' 시상식은 지난 23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11개 부문 26개 수상작 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에 수상한 건학 100주년 기념 광고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담았으며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이어령 박사, 현각 스님, 그리고 홍기삼 총장의 메시지를 통해 100년 역사의 자부심을 잘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어PASS제 대체강좌 신청

국제교육원(원장=김일중 · 국제통상학)에서 2006학년도 하반기 졸업인증 영어 PASS제 대체강좌 신청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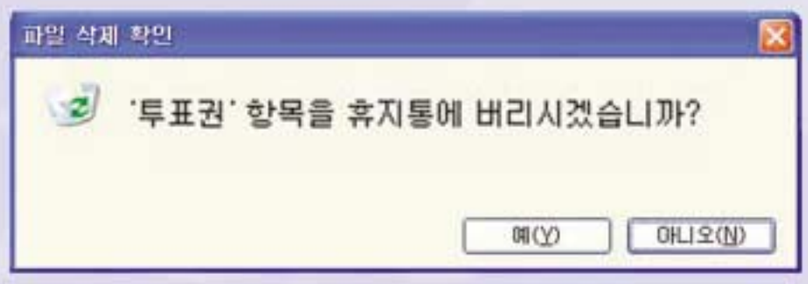
신청은 오늘부터 다음달 8일까지 국제교육원에 하면 된다. 수강료는 28만 원이고 모든 수업에 출석하면 5만 원을 환급해준다. 이는 졸업인증 미 취득자에 대해 보충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사학위 취득에 준하는 외국어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개설됐다.

2007년 2월 졸업예정자 가운데 영어 PASS제 미 통과자 중에서 영어 공인인증시험(TOEIC, TOEFL, TEPS) 및 국제교육원 시행 PASS제 TOEIC시험 2회 이상 응시 경험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동대신문 기획광고

발전기금 060-700-0119

정말 버리시겠습니까?



투표는 동국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28, 29, 30일 열리는 학생자치기구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동대신문사

홍기삼 총장
4년 평가와 과제

글 싣는 순서
① 총평 / 교육분야 / 재단과의 관계
② 행정분야 / 연구분야 / 100주년 및 발전기금

각 분야에 걸쳐 특징적 사업 추진

내부구성원 갈등상황에서 정상화 추구

지난 2003년 취임해 4년간 재직하면서 건학 100주년을 치러낸 홍기삼(국어국문학) 총장. 홍 총장은 지난 4년간 교육과 연구의 강화, 필동 충무로 영상센터 구축, 신공학관 및 기숙사 부지 확보, 일산불교병원 개원, 구조 개혁 및 각종 특성화 사업 추진, MBA 개원에 이르기까지 큼지막한 업적을 여럿 남겼다. 우리 신문은 2회에 걸친 기획을 통해 내년 2월 말로 임기를 마치는 홍기삼 총장의 4년을 돌아본다.

취임 초, 열악한 재정 상태에서 일산불교병원 개원이라는 난제를 떠안은 홍 총장은 병원 개원에 필요한 최적 조건을 갖추기까지 2년 이상을 준비하는 신중함을 보였다.

병원 개원에 따르는 초기 재정의 악화가 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다행히 우리대학 경영의 최대난제였던 병원 개원 문제는 지난 해 9월 정식 개원을 함으로써 연착륙을 한 상태이고, 현재 경영 정상화를 향해 순항 중이다.

전반기 임기 동안, 학교 안팎의 주요한 조직과 구성원들이 분열과 갈등을 일으킴으로써 학교 발전의 역량을 결집시킬 수 없었던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아쉬움이 크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홍 총장의 주요 업적을 꼽자면 중앙대 필동병원(4천8백평) 및 필동 테니스장 부지(4천4백평) 매입, 행정조직 개편 및 인사개혁 단행, 교육과 연구 강화 정책 시행, 구조개혁과 각종 특성화사업 추진, 백주년 행사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우리 신문에서는 크게 ▲교육 ▲재단과의 관계 ▲연구 ▲행정 ▲100주년 및 발전기금 등의 부문을 나눠서 살필 예정이다.

이주현 기자
niitake@dongguk.edu

재단과의 관계

재단과의 관계회복 및 사업활성화 노력

재단과 화합기회 마련 … 전입금 환수는 과제로 남아

홍기삼 총장은 2002년 말 총장선거 출마 당시 선거 공약으로 재단 사업 활성화에 관해 "교계에서 학교 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열악한 현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 지속적으로 재 · 종단과의 관계개선에 힘쓰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취임 초 홍 총장이 제시했던 계획들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점검해본다.

▲재단과의 관계

홍 총장 취임 후 동문회와 재단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재단과 학교를 비롯한 구성단체 간에 대립구조가 형성되기도 했다. 지난 2004년 중앙대 필동병원 매입과 관련해 이사장의 승인 없이 병원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사장과 총장의 해명을 요구하는 등 내부갈등이 심화됐다.

또한 학교와 종단간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던 이사 선출 문제가 갈등을 증폭시켜 재단과 종단 사이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까지 했다. 결국 구성원들 간의 이해와 의견수렴이 부족해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우는 게 문제로 지적됐다.

학교 측의 한 관계자는 "병원 매입과 관련해서 사전에 의사수렴 과정이 부족해 매입한 후에도 학내에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러한 내 · 외부적 갈등이 발생한 후 동문회, 재단, 학교 측 대표가 모여 화합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그동안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각 주체에서 이뤄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재단사업 활성화 및 재단 전입금 환수

홍 총장은 취임 초 재단 전입금 확대방안으로 "재단에 수익 사업 권유, 의료지원 등 교계를 위한 봉사활동을 펼쳐 교계 분담금이 학교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내세웠다.

그러나 재단 측에 수익사업을 권유해 사업을 활성화시켜 교계분담금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학교 측은 "재단 측 사업이 활성화 된다면 학교 측도 교비의 부담이 줄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교 측은 전 총장 재임 시 불교병원 건립에 사용된 341억 5천 9백만 원의 금액을 2004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교비로 환수할 계획을 밝혔다. 2004년 70억 원이 교비로 환수됐고 2005년 강남한방병원 임대수익 85억, 법인재산 30~40억을 교비로 환수했다. 하지만 아직 교비환수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 앞으로도 교비 환수를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단 전입금은 △2003년 18억 9천 7백만 원, △2004년 67억 3천 8백만 원, △2005년 185억 6천 9백만 원으로 증가했다. 법정부담금의 경우 몇 년째 교비로 충당되고 있어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계 기부금의 경우 2004년 총무원장 장학금으로 매년 1억 원을 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기탁 받고 있다. 올해는 서울캠 · 경주캠 총 40명의 학생들이 총 8천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지난 5월 100주년 개교기념식 이후 총무원 교육원이 기부금 10억을 약정하고 1차 분담금으로 5억을 기부했다. 남은 분담금은 올해와 내년에 걸쳐 기부하며 앞으로 계속해서 기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학교가 불교종립대학인만큼 재단 및 종단과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다. 재단 내부 혹은 재단과 학교간의 대립구조는 소모적 대립으로 이어져 학교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현 체제 안에서 재단은 학교와 이사회 각 주체에 대한 역할분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측도 재단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각종 수익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미혜 기자
lmisonara1@dongguk.edu

교육분야

교육환경 조성 기반 마련

교육강화 정책 추진 … 교수회 갈등 빚기도 해

홍 총장이 가장 주력했던 분야는 단연코 학생들의 학습량 증대이다. 그는 지난 2004년 1월 시무식에서 "대학의 경쟁력은 그 무엇보다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게 하여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는 데 있다"며 "실력 있는 대학을 만들기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에 재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학생들의 학습량은 지난 4년 전에 비해 눈에 띄게 늘어났다. 교수들의 교육강화 방침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교양교육원 체제가 출범하면서 읽기와 쓰기 시간이 대폭 늘어났고, 전공 강좌 역시 교육의 양과 질이 높아짐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교내의 모든 장학금 수혜의 기준도 학점 3.0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었다.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조성되면서 학교 경영의 기본 방침인 교육강화정책이 위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취임 전부터 홍 총장이 교육강화 사업과 관련해 밝혔던 부분은 △교육특성화 사업 추진 △학부제 재검토 △교수평가제도 개선 등이었다. 4년 임기 동안 교육분야의 성과는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 특성화

2003년부터 특성화 사업을 크게 △불교생태학 △영상문화콘텐츠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했다. 2004년 10월부터 불교생태학 에코포럼을 개최,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또한 2004년 5월에는 '2004학년도 대학 특성화 분야'에 △국어국문학 · 문예창작학과 △반도체과학과 △경주캠 관광경영학과가 선정돼 특성화 분야사업이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2005년 7월에는 '충무로 · 강남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영상CC 전문인력 양성프로젝트' 사업이 정부의 대학 특성화 지원사업으로 확정,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 비전선포식을 통해 대학특성화사업 노선인 'ABC+α'에 기반을 둔 서울 · 경주 · 일산캠퍼스의 특성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을 발표했다. ABC+α를 기반으로 한 캠퍼스별 특성화 추진방향은 서울캠퍼스의 Asia분야(불교학, 지역학), Bio분야(생명과학), Culture분야(영상문화콘텐츠), IT · NT분야의 특성화이다 이러한 추진 과정을 통해 특성화 분야에 대해 장기적으로 계획, 투자하면서 성과를 이뤄내고자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교육인프라 구축

▲ 교과과정 개편

교육기획단을 구성해 2005학년도 교양교육운영과정 체제를 개편하기 위해 장기간 준비해왔다. 2006학년도 1학기부터는 기존에 드러났던 교양과목 심화성 부족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핵심교양' 강좌를 신설해 1학년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시행했다.

당초 취지는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의 수준을 높이고 각 학문의 특성과 심층성을 살린 강좌를 증설하는 것이었다. '핵심교양' 강좌는 기존의 교양강좌보다 넓은 분야의 과정을 다뤄 다양성이 강조된 측면은 있지만, 교양강좌 과정의 심층성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이의 보완을 위한 연구를 교양교육원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학과제로의 전환

홍 총장은 공약을 발표할 당시 학부제를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지속되자 학부제 유지를 재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취임 초기인 2003년 초부터 학과제로의 전환이 이뤄졌다. 2004년 인문대가 학과제로 전환된 것을 시작으로 2004년 생자대가 학과제로 전환됐다. 학부제를 유지하면서 나온 문제점이 오랫동안 지적돼왔고 이를 간과할 수 없기에 학과제 전환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했던 점은 구성원들 내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학과제로 전환하면서 그에 맞는 교과과정으로 강의 커리큘럼 재개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생자대의 한 교수는 "생자대가 학과제로 전환된 후에도 교과과정은 거의 변화가 없어 학과별 전공심화수업이 이뤄지지 못해 전공수업을 하면서 학생들로부터 커리큘럼에 대한 불평을 듣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학과제 전환 논의대상이었던 사과대의 경우 아직 제대로 된 분리나 학과제로의 개편이 이뤄지지 못해 이에 대한 논의를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 교육업적평가 시행

홍 총장은 출마공약에서 '교수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을 통해 획일적 제도가 아닌 대학별 특성에 맞는 평가 제도를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평가 기준에서 교육의 비중을 높여 이에 지난 해 5월 새로운 평가기준을 적용한 교육업적평가제도 시행을 발표했다. 우리대학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취지로 발표된 이 제도 시행에 대한 학교 측과 교수회간의 입장차로 대립구조를 형성하기도 했다.

교육업적평가 시행에 대해 교수회 측은 "현 상황의 연구 환경과 학문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평가에 교수들이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장기적인 갈등구조를 만들었다. 학교 측의 제도 시행 발표에 교수회 측은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교수회 관계자는 "교수평가를 단과대별로 자율성을 보장하고 평가지표를 단순화해 점진적으로 시행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했던 점은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교육업적평가는 발표 당초보다 기준을 완화해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 총장이 임기동안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과정 강화에 총력을 기울인 만큼 교과과정과 전공별 교육체제에 변화를 주려고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제도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의견수렴과 절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장기적인 갈등이 발생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채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다. 앞으로도 교육환경과 과정 개선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뤄져야 할 것이며, 특성화 사업을 비롯해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분야의 사업들은 다음 총장 임기에도 연계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강지혜 기자
iamjh713@dongguk.edu

제2회 동아시아 환경자원경제학 심포지엄 개최

2006년도 이제 한 달을 남겨두고 한국환경경제학회, 동국대학교 생태환경연구센터, 그리고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은 공동으로 제2회 동아시아 환경자원경제학 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의 환경관련학회들과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의 환경자원경제학 관련 학자 및 기관들이 대거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로서 동아시아에서의 환경 및 자원경제학의 역사와 환경 · 자원경제학의 관점에서 지속가능발전의 확산을 증진시키고, 이에 대한 학문적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재고찰'이라는 주제로 열리게 될 이번 세미나에서는 동아시아 각국의 환경 · 자원경제학의 역사를 개관하고, 각국의 주요 환경정책들을 살펴봄으로써 세대내 · 세대간 형평성을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의 이념과 실제를 반추해 보고, 보다 나은 지구환경 개선을 위한 해결방안들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폭우, 대지진, 이상기온 등 올 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환경파괴로 인한 자연의 무서움을 실감했던 한해였습니다. 이제 점점 추워지는 겨울, 이번 세미나에 함께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고, 환경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한 해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시 간 : 2006년 11월 30일(목)~12월 1일(금)
장 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주 제 : Rethink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East Asia
주 최 : 한국환경경제학회/동국대 생태환경연구센터 / 한국환경 정책 · 평가연구원
주 관 : 한국환경경제학회/동국대 생태환경연구센터
후 원 : 한국가스공사, 한국학술진흥재단, 환경부, 풍림산업주식회사, 삼성지구환경 연구소, SK케미칼
문 의 : TEL) 02-2260-8648 FAX) 02-2260-8649 ecoforum@dongguk.edu

생태환경연구센터
eco-research.dongguk.edu

2007-1학기 전과(전공변경) 시행

2007학년도 1학기 전과(전공변경)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전과(전공변경)하고자 하는 재학생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전과 신청 대상 : 2006-2학기(2006.11.30 기준) 현재 2,3,4,5학기 재학생
(*휴학생, 편입학생, 전과 이력이 있는 학생, 수시모집 불교계추천전형 불교학부 입학생 : 전과 불가)

2. 전과 가능 학과, 인원 및 전형기준 :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3. 전과 일정
가. 신 청 기 간 : 2006. 11. 28(화) ~ 11. 30(목) 09:00-17:00
나. 전 형 일 시 : 2006. 12. 21(목) 학과 지정 일시
다. 합격자 발표 : 2007. 1. 26(금) 학교홈페이지
라. 학적 변동일 : 2007. 3. 1(목)

4. 제출 서류 및 제출처
가. 전과 신청원 1부
(양식 : 학교홈페이지 - 학사 / 생활 - 양식함 - 전공 - No.4)
나. 전과 학업이수계획서 2부
(양식 : 학교홈페이지 - 학사 / 생활 - 양식함 - 전공 - No.5)
다. 성적증명서 2부 (발급 : 본관 증명서발급실)
라. 서류 제출 및 문의 : 전입 희망 학과 소속 대학행정지원실

5. 졸업요건, 복수전공, 취득교과목이수구분 등
가. 전과한 학생은 전입 학과에서 정한 교양 및 전공과목 취득, 논문, 외국어패스제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졸업이 가능 함
나. 전과 이전 전출한 학과(기존 전공)를 복수전공으로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음
다. 취득교과목 이수구분(교양,전공,자선 등)을 전입학과 기준에 따라 변경 할 수 있음
(*이수구분정정신청원(학교홈페이지 양식함 참조)을 전과 후 대학행정지원실에 제출)

6. 제한 및 유의사항
가. 학과별 세부 전형기준을 반드시 확인(*문의: 학과사무실 또는 대학 행정지원실)
나. 전과 이중지원(복수지원)자의 신청과 합격은 전체 무효 처리 함.
다. 전형 불참자(미등시자)는 서류심사결과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됨.
라. 전과 합격 후 전과취소는 불가능하며, 추가 신청기회가 주어지지 않음.
마. 전과제도의 변경(자격, 전형기준 등)에 따라 이전의 전과시행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바. 2006-2학기에 전공결정을 하는 불교학부, 사회과학부, 경영학부 1학년 학생이 동일 학부 내 전공에 전과 신청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전공결정판정대상에서 제외 함
(*전과 합격 결과 우선 반영 후 전공 판정)

7. 문의 : 전입 희망 학과사무실, 대학행정지원실 및 학사지원실

교 무 처

2007-1학기 재입학 안내

2007-1학기 재입학 신청과 심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입학 신청 기간/장소 : 2006. 12. 5(화) - 12. 7(목) / 소속 대학 행정지원실

2. 재입학 대상자 (*징계처분제적생과 재입학후성적경고제적생은 재입학 불가)
가. 휴학기간 만료 미복학 제적생
나. 미등록 제적생
다. 성적경고누적 제적생 (2005년 2월 28일 이전 제적생)
라. 자퇴생

3. 재입학 가능 인원수 (*학년 구분 없음)
가. 비사범계학과 총 가능인원 : 정원내학생 140명, 정원외학생 34명
나. 사범계학과(정원내학생) : 수학교육과 2명, 가정교육과 3명, 체육교육과 1명

4. 제출서류
가. 재입학 신청서 1부 (*학교홈페이지-서울-학사/생활-양식함-학적-No4 서식)
나. 학업이수계획서 1부 (*학교홈페이지-서울-학사/생활-양식함-학적-No5 서식)
다. 학적부 1부.
라. 성적증명서 1부.

5. 재입학 심사일 : 2006. 12. 12(화) - 12. 15(금) 기간 중 대학별 자체 시행

6. 재입학 결과 발표 : 2006. 12. 29(금) 소속 대학 행정지원실

7. 등록 기간/장소 : 2007. 2. 12(월) - 14(수) / 제일은행, 조흥은행

8. 유의사항
가.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등록금 미납)에는 재입학 허가를 취소(*무효 처리)
나. 재입학 학기(2007-1학기) 일반휴학은 불허
다. 재입학생의 기존 학적 및 상벌 사항 등은 연속하여 적용
라. 성적경고누적제적 재입학생이 재입학 후 성적경고를 1회 더 받으면 재입학 후 성적경고 제적처리되며 더 이상 재입학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
마. 2005년 8월 31일 이후 성적경고누적제적생은 제적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 후 1회에 한하여 재입학 가능
바. 징계처분과 재입학후성적경고에 의한 제적생은 재입학 할 수 없음

9. 문의 : 소속 대학 행정지원실, 학사지원실

교 무 처

대학서열화 조장,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대학서열체제 해체만이 대학의 발전을 가져온다

논단

최 순 영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사회발전 가로막는 입시문제

"북적이는 입시설명회 열풍", "논술이 당락좌우, 강남 사교육 기승"은 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매년 이맘때쯤이면 신문지상을 장식하는 단골 메뉴기사 제목이다. 학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이른바 '스카이 대학'에 자신의 자녀를 입학시킬 수 있을지에 골머리를 앓고 각종 정보전과 물량전에 돌입한다.

이러한 기현상이 과연 우리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될까? 입시전쟁은 제로섬 게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핵심적인 장애물이 아닐까? 입시문제는 언제나 우리사회 주요한 논란거리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어떠한 입시정책도 입시과열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해왔다. 그것은 원인을 건드리지 않고 변죽만 울렸기 때문이다.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입시문제의 원인은 대학서열체제로 인한 것이다. 대학서열체제는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가 그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권력을 결정해주는 핵심적인 지표가 되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대학입시의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른바 학력을 통한 권력의 세습 현상까지 구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의 양극화가 권력의 세습으로 나아가는 구조적인 문제로 되고 있는 현재의 한국사회는 분명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한다. 사회적으로는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 문화적 소외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식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의식의 변화가 부진하다면 이러한 차별을 철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학력차별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당하지 않은 차별을 폐지하는 '차별 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지위에 따른 우월과 좌절의 사회적 관계가 아닌, 위치의 차이에 대한 존중과 이해의 관계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택시기사가 대학교수를 보면서 서로 다른 위치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학서열해체의 필요성

동시에 현재의 구조적으로 서열화된 대학서열체제의 해체가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4년 총선에서 서울대 폐지와 국공립대 통합을 주장한 바 있다. 간혹 민주노동당의 서울대 폐지론이 서울대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오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서울대 폐지론은 서울대가 가지는 핵심사회권력 창출 기능을 없애자는 것이지, 그 교육기능과 연구기능 모두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서울대가 졸업장 수여기능을 없애고,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위탁교육과 학문연구에 매진한다면 서울대는 진정한 교육과 학문연구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서울대의 고등교육지원센터화이다.

또한 국공립대 통합을 통하여 한국대학 서울 캠퍼스, 한국대학 부산 캠퍼스 방식으로 현재의 국공립대를 재편하자는 것이다. 동일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 체계를 통합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적어도 국립대학 내의 서열을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국립대학을 확대하여 사립대학을 흡수해 나감으로써 현재의 대학서열체제를 국립대의 통합과 확장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다.

경쟁에 시달리는 한국대학

흔히들 대학간 경쟁이 있어야만 대학이 발전한다고들 한다. 한국대학들은 정말 많은 경쟁을 한다. 오히려 경쟁에 시달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경쟁은 대학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형적이고 불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대학의 구조화된 서열화, 양극화로 귀결되고 있다. 양극화된 자원에서 출발하는 경쟁은 결국 소수만 살아남고 대부분은 좌절하는 결과만을 가져온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대학의 발전이 있을 수 없다.

학력주의, 학벌주의는 현대사회의 보이지 않는 주홍글씨이다. 대학입시에서의 승패가 인생에서의 승패를 결정해버리는 현대화된 계급사회의 낙인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질 시기가 되었다. 악한 독기운을 뿜고 있는 종기는 짜는 정도가 아니라 도려내어야 한다. 그래야만 몸전체에 퍼져 있는 악한 기운을 없앨 수 있다.

국제화 물결속 교환학생제도 보완 시급

영미권 대학과 교류 활성화·등록금 지원 해결 돼야

국제화의 물결 속에서 세계는 글로벌 시각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각 대학들도 교환학생, 해외인턴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학생들 또한 유학이나 어학연수와 달리 파견된 학기 동안 정규학기로 인정되고, 해외 대학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비용이 적게 드는 점 때문에 교환학생제도를 선호하고 있다. 교환학생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 시행체제에서 지적되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학교는 16개국 59개 자매대학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6개국 16개 학교에 교환학생을 파견하고 있다. 교환학생 신청은 3~5학기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부과정 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학부과정 성적 50%, 면접평가 50%의 비율로 선발하며 면접에서는 파견 국가에 해당하는 어학능력과 일반적인 수학능력, 학습계획을 평가한다. 교환학생 경비는 학비 및 기숙사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학비가 면제되는 학교도 있다. 이것과 함께 우리학교에도 해당학기의 등록금을 내야하는데, 이 경우에는 등록금의 36~72%까지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학교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영어권 대학의 파견이 캐나다의 UBC와 미국의 노던주립대학, 미시간주립대 3개로 성균관대 26개, 중앙대 11개, 경희대 9개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교환학생을 준비했던 김근율(영문3) 군은 "일본, 중국에 있는 대학과 맺은 교류협정에 비해 영미권 대학은 선발하는 학생 수가 적어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제교육원의 한 관계자는 "영어권 대학에서는 교환 요구가 잘 안들어온다"며 "자매대학을 확대시키고 교환학생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해외 대학에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비부담 측면에서 볼 때 학비가 면제되는 대학도 있으나, 학생들이 교환학생으로 가는 대학의 등록금과 우리학교의 등록금을 이중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 학생들에게 더욱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단국대는 전체 교환학생에 대해 해외 대학의 등록금을 내지 않게 하고 있고, 건국대도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학교에 대해 장학금 형식으로 해외 대학의 등록금을 3백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국대 국제협력센터 손대중 직원은 "어학 능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인턴쉽, 문화단기과정 등 다른 국제 프로그램에 대해 기회를 줘 학생들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학교도 선발과정에서 자기소개서나 학업계획서의 비중을 높여 다양한 교내외 경험을 가진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학교에서도 교환학생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교류 범위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늘릴 필요가 있다.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설명회 등을 열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끄는 동시에 세계 우수대학과의 접촉을 통해 다양한 인재교류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송이 기자
thispaper@dongguk.edu

사설

총장선출, 구성원 의견 수렴과정 필요

지난 24일 열렸던 총장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 2차 회의에서 제16대 총장후보의 윤곽이 드러났다. 총장후보에 올라온 이들은 교내인사 5인, 외부인사 1인으로 이들은 정책토론 및 총추위의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교내 2인, 외부 1인이 이사회에 추천되어 제15대 총장으로 선출되게 된다.

이번에 선출될 총장은 총추위를 통해 처음으로 선출되는 총장이며, 외부인사까지 총장후보 범위에 포함시켜 선출이 이뤄지기에 어느 때보다도 학내 구성원들의 관심이 높다. 또한 건학 100주년을 치른 후 새로운 시작을 이끌어갈 총장이기에 임기 4년 이상의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총장선출과 관련해 앞으로 정책 검증과 실현가능성 및 발전계획을 평가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이고 이 과정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임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무엇보다 구성원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져야 선출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후유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총장선출과 관련해 현재 총추위를 구성하고 있는 재단, 교수, 학생 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 총장 최종후보를 결정하는데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대표권을 행사하기 전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과정과 노력이 생략돼서는 안된다.

총장 선출에 있어서 또 한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바로 선출과정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총추위에 등록된 총장후보가 가시화된 현 시점까지도 총장선출방식에 대한 갈등은 아직 사그러들지 않고있다.

우리학교 뿐만 아니라 현재 총장을 뽑는 과정에 있거나 이미 뽑은 학교에서는 선출방식과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총장선출 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및 후유증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총장선출 전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모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만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

총장선출결과 발표가 예정된 오는 12월 중순까지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총추위에서 차기 총장을 어떤 후보로 결정하는 지 못지않게 어떠한 과정을 거쳐 총장이 선출되는지도 중요한 요소임을 구성원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동국만평

이주현 niitake@dongguk.edu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 행 인 홍기삼
편집인겸주간 윤재웅
편 집 장 강지혜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구독문의 :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100주년

글로벌 수준의 진정한 MBA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에서 만들어 드립니다

2007년 건학 101주년, 세계 중심대학을 목표로 아심차게
나아가는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
비즈니스 리더의 꿈을 실현하십시오.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MBA는 다릅니다
- Full-time(주간) MBA 재학생 전원 장학금 지급
- 주간, 야간, 주말 과정 개설
- 기업 요구에 부합하는 실무·case study 중심의 교과과정 개설
- 동북아 최고의 교수진
- 최첨단 시설의 교육환경
- 서울 중심 소재, 편리한 교통 교육부 정식 인가 전문 MBA

DONGGUK MBA

2007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MBA 모집
- 모집과정 : 주간 MBA, 야간 MBA, 주말 MBA, 야간 CO-MBA(문화경영 MBA)
- 원서교부 및 접수 : 2006년 11월 20일(월) ~ 11월 30일(목)
- 면 접 : 2006년 12월 2일(토)
- 접수방법 : 인터넷, 우편, 방문접수
- 문의처 :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02)2260-3106, 3990
- 홈페이지 : http://mba.dongguk.edu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 1906

2007 전기 동국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일반전형)

▣ 모집과정 및 학과 : 석·박사과정 및 학과간 협동과정
▣ 모집인원 : 각 학과별 약간 명
▣ 지원자격
1. 국내·외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 취득자 또는 2007년 2월 취득예정자.
2.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형방법
1. 석사과정 : 서류전형 및 면접
2. 박사과정 : 필기시험(영어, 전공) 및 면접, 제 2외국어(불교· 인도철학과에 한함)
▣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장소 및 유의사항
원서교부	2006. 11. 13(월) ~ 12. 1(금)	◎ 장소 - 대학원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함. (http://gs.dongguk.edu) - 서울캠퍼스: 학술관 1층 대학원 행정지원실 - 경주캠퍼스: 진흥관 1층 사회과학대학원 행정지원실
원서접수	1.인터넷접수: 2006. 11. 20(월) ~ 11. 28(화) 17:00까지 (www.uway.com-동국대학교 대학원) 2.방문접수 : 2006. 11. 27(월) ~ 12. 1(금) 17:00까지	
전형일시 및 장소	2006. 12. 16(토)	◎ 10:00시부터(면접은 학과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가능) ◎ 시험전 대학원 홈페이지 공고
합격자 발표	2006. 12. 29(금) 14:00 예정	대학원 홈페이지 공고
등록기간	2007. 1. 2(화) ~ 1. 5(금)	신한, 제일 전국 각 지점

▣ 장학
1. 외국인 입학생은 등록금의 50% 장학금 지급 (의학계열제외)
2. 조교장학(연구, 교육 및 행정조교), 총장장학, 고시장학, 공인회계사장학 등 다수가 있음
3. 화학, 물리, 수학, 생물학과 재학생에게 박관호교수 후배사랑 장학금 지급
4. 전자공, 건축공, 화학공학과 학생에게 연구비 지급
5. 본교 학사, 일반대학원 석사 출신 입학생은 입학금 면제(졸업 후 3년 이내 진학자)
6. 국문, 반도체과학과 입학생에게 특성화 장학금 지급
7. BK21 관련학과(불교,반도체과학) 장학금 지급
8. 과학기술 연구장학(물리, 반도체과학, 전자공학과)
9. 해외자매대학 교환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조

동국대학교 대학원
http://gs.dongguk.edu
TEL. 02-2260-3094~5, 3116
FAX. 02-2260-3685

가을·도서관·100주년 기념 시화전

봄에 못 본 시화전, 가을에는 꼭 본다

건학 100주년 기념 시화전을 다시 엽니다.
지난 4월 인사동 공평아트센터에서 열렸던 시화전을
11월 28일(화)부터 12월 6일(수)까지 중앙도서관 전시실에서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품작 총 120점 중 기존 판매 작품을 제외한 80점 정도를 선보이게 되며,
이는 교내 구성원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한용운, 서정주, 조지훈, 이형기, 신경림,
조정래, 황석영 등 작품

동국문학 100년의 역사를 대표하는 시인,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그림은 동문 출신 화가 및 서예가들이 맡아주셨습니다.
지난 봄, 전체 교직원에게 드린
〈100년의 만남-건학 100주년 기념 시화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품 판매, 50만원과 70만원 두 종류, 선착순

작품 소장을 원하시는 분에게 판매하며, 판매금 전액은
학교 발전기금으로 처리됩니다.
봄 전시때 삼백만원에서부터 이천만원까지 팔렸던 작품들을
이번 전시회에서는 교내 구성원들에게 특별히 실비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예약 판매는 받지 않고 전시장에서 선착순으로 판매합니다.
1인 2점까지 구매 가능하며, 분납이 가능합니다.
구매 작품은 전시회 종료 후 개별 전달하며, 구매하신 분에게는
각종 시화기념품(도록, 엽서, 손수건 등)을 선물로 드립니다.
건학100주년기념사업본부는 늦은 가을, 시와 그림과 모교사랑의 따뜻한 온기를
모든 동국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시 기 간 : 11월 28일(화)~12월 6일(수),
10:00~16:00(토, 일요일 제외)
개 막 식 : 11월 28일(화) 오전 11시 30분
전 시 장 소 : 중앙도서관 전시실
판매대상자 : 본교 재직 및 퇴직 교직원,
동문 및 학생과 학부모
작 품 판 매 : 선착순, 1인 2점까지 판매
작 품 대 금 : 전시장 직접 납부 또는 약정서 제출 구매 가능
(발전기금 처리)

건학100주년기념사업본부
02-2260-3120, 3122

2007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선거가 오는 28일부터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각 후보들을 만나 입후보 이유와 주요 공약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학생자치기구 입후보자 인터뷰

제39대 총학생회 후보 정 : 정형주(통계4) / 부 : 최운철(경영4)

"학생 편의 챙기는 특별한 학생회 만들겠습니다"

주요공약

1. 수도권 셔틀버스 운행
2. 근거 없는 등록금 인상 반대
3. 동국관, 문화관, 중앙도서관, 정보문화관 증축
4. 리포트 빨간펜 첨삭지도제 실시
5. 불우학우 장학신설
6. 학생들을 위한 물품 대여
7. 항상 똑같은 식당 개선
8. 취업박람회 개최, 외부 대형 박람회장 티켓 지원

39대 총학생회 정후보 정형주(통계4, 오른쪽), 부후보 최운철(경영4, 왼쪽)

- 공약을 정할 때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 이번 38대 총학생회는 문화사업에 치중해 활동을 해왔는데 문화사업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올해 총학이 풀어나가지 못한 부분을 채워나갈 생각이다. 당선돼 활동을 하게 된다면 공간문제, 등록금 인상문제, 캠퍼스 내 주차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편의에 중점을 두고 공약을 세웠다.

- '수도권지역 셔틀버스 운영' 공약은 기존의 학생회 후보가 제시한 공약들에 비해 다소 새로운 공약인데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 현재 서울 내 일부대학들이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셔틀버스 운행은 아침에 학생들이 강의시간에 맞춰 올 때 버스 전용노선을 이용하기에 빠르게 올 수 있고, 갈아타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셔틀버스 운행을 외부 버스업체에 맡겨 운영할 생각이다.

현재는 무료셔틀버스를 추진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버스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하철 요금수준으로 요금을 내고 학생들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일단 공약집에 일부지역을 노선으로 제시했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다. 버스 이용 인원에 대해서도 사전 조사를 해서 인원파악을 해 운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다.

- 학교 측과의 등록금 인상문제 협의 방안은.

= 올해는 건학100주년이였기에 학교 측에서 건학100주년사업에 많은 부분을 투자했고, 등록금도 사업 추진쪽에 많이 쓰인게 사실이다. 건학 100주년 행사가 마무리 돼 내년 등록금을 무리하게 인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등록금이 책정된 상태에서 투쟁을 하고 항의를 해나가기보다는 등록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사가 등록금 책정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학교 측과의 등록금 인상문제 협의과정을 학생들에게 모두 공개해 학생들이 그 과정을 지켜보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학생회 차원에서는 원탁테이블, 학생총회, 본관점거 등의 방법으로 등록금 인상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데 본관점거의 경우에는 비효율적이라 판단된다면 본관점거를 하지 않을 생각이다.

기존의 원탁테이블을 보면 단과대 학생대표자들이 원탁테이블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학생 전체의 여론도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다. 이번에는 협상과정 공개를 통해 각 학생대표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등록금 인상에 대해 학생 내 전반적 여론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겠다.

- 리포트첨삭지도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수님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한데.

= 첨삭지도제는 그동안 리포트 채점과정에서 발생했던 폐해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교수님들이 모든 부분을 담당하는 것은 여건상 힘들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모두 참여해야 한다고 강요하기는 어렵다. 좋은 취지이고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니 교수님들께서도 참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공약의 실천 필요성을 강조해 현 강의 체제에서의 폐해를 해결해 나가겠다.

- 이번에 남산고도제한이 완화되긴 했지만 증축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결정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로부터 증축허가가 나지 못한 상황인데.

= 건물 증축과 남산고도완화는 복합적이고 변수가 많은 문제이다. 우리학교의 고질적인 공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축은 꼭 이뤄져야 한다. 당선돼 활동을 하게 된다면 일단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공간에 대해 증축우선순위를 제시해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공간 부족 문제를 무조건 학교 측의 대안과 작업에만 기대지 않고 학생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공간증축에 대한 서명운동을 실시해 서울시 측에 자료를 제공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 해결에 능동적으로 나설 생각이다.

- 공약들을 살펴보면 기존에 총학생회들이 내세웠던 공약보다 비교적 학교 측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아 보이는 데 학교 측과 어떻게 협의를 해나갈 생각인지.

= 그동안 학생회의 활동이 학교 측의 협의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인식돼 왔고, 실제적으로 학생회 활동이 그러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학생회 활동이 학교의 결정 및 합의하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학교 측에 요구할 부분을 요구하고 앞장서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학생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방안은.

=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을 바꾸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다.

현재 학생들이 학생회 활동에 대해 워낙에 무관심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우선적으로 해나간다면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 커질 것이라 생각한다.

강지혜 기자
iamjh713@dongguk.edu

제20대 총여학생회 입후보자 변승희(경영3)

"남녀를 아우르는 열린공간 만들 것"

- 총여학생회장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 여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동국인들을 위해 일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랫동안 총여학생회(이하 총여)의 회장단이 조직되지 않아왔는데, 집행부가 구성된다면 기존보다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사업들을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복지나 교육 사업들의 미진한 부분들을 나서서 학교 측에 전달하고 대화하겠다.

-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공약은.

= 무엇보다 다양한 분야의 세미나를 개최하겠다. 훌륭한 선배님이나 각계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최신정보를 얻고 인맥을 형성해서 졸업 후 사회생활에서 나아가 세계무대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할 것이다.

학생들이 휴학을 통해 학교 바깥에서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 안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성별에 관계없이 체험가능하고 즐길 수 있는 세미나를 기획하겠다.

또한 총여학생회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여학생들 간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겠다. 여기에는 산부인과 상담게시판이나 고민상담 게시판도 개설할 계획이다. 동시에 오프라인에서도 동문 선배가 주축이 된 그룹 혹은 일대일 멘토링 체제 구축을 염두에 두고 있다.

- 총여학생회의 필요성에 대해 말한다면.

= 총여는 학생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학생의 뜻을 대변하는 학생과 학교 사이의 기구이다.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학생들이 있는데, 총여는 남녀간의 차이를 인식해서 여학생들의 인권을 신장시키고 양성평등을 이뤄내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세미나와 상담의 대상에는 남학생도 포함되는 등 총여는 남학생을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만이천여명의 동국인을 아우를 것이다.

정은미 기자
eunmi@dongguk.edu

제39대 총대의원회 입후보자 정평주(야간 국제통상3)

"학생들의 바람 실현 도와줄 터"

-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된 이유는.

= 야간강좌 학생회장을 하며 발견했던 강의 환경이나 학생 복지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고자 한다. 총대의원회 의장 역할을 충실히 해 보다 많은 학생들과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

기존의 총대의원회가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학생회 감사나 선거 진행 등의 기본 역할을 잘 해내지 못하고 대의원들의 의견통합을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회칙에 따라 제 시기에 각 단과대의 대의원으로 구성된 감사특별위원회와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해 총대의원회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무엇인가.

= 학생들의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해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1만 2천 동국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대표할 수 있는 총대의원회의 원래 기능을 수행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의원(과대표)들의 자격, 즉 리더쉽이 갖춰져야 한다. 대의원의 리더쉽 교육을 지원해 학생들의 의사를 잘 대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활동을 하는 대의원들의 역할은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므로 대의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의원에게 주어지는 총장 장학금 외에도 다른 장학금을 이중 수혜할 수 있게 하고,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한다. 학교의 주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학생들이다. 학생들이 원하는 모습이 있다면 현재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또한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공동체 의식을 가졌으면 하고 학생자치기구 활동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대의원 체계 운영을 강화해 긍정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

이송이 기자
thispaper@dongguk.edu

제19대 졸업준비위원장 입후보자 김묵주(통계3)

"취업걱정 돕는 도우미 될 것"

- 입후보한 동기는.

= 1, 2학년 때는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일반 학생으로서 학교를 다녔었다. 복학한 이후 올해에는 아는 사람을 도와 졸준위 활동을 하다가 앨범국장까지 맡게 됐다.

내가 취업국장을 맡았던 1학기에 진행됐던 취업특강은 나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또한 앨범국장으로서 지난 졸업사진 촬영기간 동안의 바빴던 일정과, 몇몇 학과들과의 마찰은 힘들었지만 끝나고 나니 보람찬 기억으로 남았다.

이 1년 동안의 경험으로 책임감과 소속감을 키우고 나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보다 나은 졸준위 활동의 성과를 거두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번 출마로 나로서는 '위원장'의 경험을 새로 얻고,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주요공약은 무엇인지.

= 공약으로는 △취업 관련 자격증 학점인증제 실시 △취업박람회 개최 및 대형 박람회장 티켓 비용 지원 △졸업앨범제작업체 선정 투명성 보장 △과대표 장학, 성적우수 장학 이중수혜 허용 추진 △졸업생 기념품 지급 추진을 내세우고 있다.

우선 취업박람회는 학생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꾀할 수 있는 기회다. 한편 우리학교의 위상을 높일 수도 있고, 학생들의 취업률이 높으면 얻는 것도 많기 때문에 학교와 함께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취업특강 역시 인지도 높은 대기업 입사에 관한 기존의 틀에 박힌 취업특강이 아니라, 칵테일 시음법, 스튜어디스 등 특수한 전문분야의 재미있는 특강을 실시하려 한다.

특히 기념품을 내년 2월에 지급할 것이다. 사회진출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명함첩이나 USB메모리 같은 실용적인 기념품을 제작할 예정이다. 현실성 있는 약속들로 노력하는 졸준위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주현 기자
niitake@dongguk.edu

제23대 동아리연합회 입후보자 김은진(중문2)

"시설개선해 동아리활동 도울 것"

- 선거에 입후보한 이유는.

=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에서 1년 동안 기획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배우고 느낀 바를 실현시키기 위해 후보에 나섰다.

사람들과 만나는 일, 동연에서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 일 등 지금까지의 경험을 밑바탕으로 동연을 이끌어나가고 싶다.

이번에 내세운 선거모토는 'A Partner for 동아리 Life'로 동연이 동아리 구성원들의 동반자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동연과 동아리가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 지난 동연을 평가하면.

=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웠다. 중요한 행사로 '동아리 박람회'와 '동연제'가 있었는데 비대위체제였던 지난 해보다 알찬 준비로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 다만 동연제에 참가한 학생 수가 적어서 홍보가 부족했음을 실감했다. 또한 동아리 지원금도 정동아리, 준동아리 모두 기존보다 증가해 동아리 활동에 도움이 되었다.

- 주요 공약에 대해 설명한다면.

= 무엇보다도 학생회관 시설을 쾌적한 환경으로 변화시키겠다. 오래 돼서 상태가 좋지 않은 낡은 동아리우편함을 교체하고, 금이 간 동아리방 등 전반적으로 낙후된 시설보수에 힘쓸 것이다.

또한 자판기 설치를 추진하겠다. 자정 이후에는 학생회관 출입이 통제되기 때문에 늦게까지 남아있는 학생들이 끼니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웠다.

라면자판기 등을 설치함으로써 학생들이 이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각종 대여사업을 활성화 할 것이다. 동아리에서 동연 소유의 천막, 앰프 등을 자체적으로 구입할 필요 없이 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학교홈페이지 내에 모든 동아리 홈페이지를 링크하고 내용을 새롭게 업데이트 할 것이다.

현재 우리학교 홈페이지에는 오래된 정보를 올려놓은 경우가 많아 적절한 도움을 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윤재 기자
yiyoonjae@dongguk.edu

단과대 입후보자 인터뷰

2007학년도 단과대 학생회 후보 등록 결과 10개 단과대에서 후보가 등록했다. 우리신문에서는 각 후보자를 만나 공약 및 입후보 이유를 들어보았다. 단과대 학생회 선거는 오는 28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단, 예술대는 다음달 5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편집자

문과대

신뢰주는 학생회를 위한 프로젝트

정 현성은(국문2)

- 이번에 문과대 회장으로 출마하게 된 이유는.

= 지난해 국문학과 과대표를 하고 올해도 국문과 부학생회장을 하는 등 줄곧 학생회 활동을 계속해 왔다. 그동안 새터와 대동제 사회를 보고 다양한 문과대 행사에 참여하면서 모두가 열심히 활기차게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또한 즐거웠다. 그래서 이번에 학생회장에도 출마하게 되었다.

- 구체적인 공약은.

= 무엇보다도 새터, 해오름제, 대동제, 명진 체전 등을 함께 만들고 나누는 행사로 기획할 것이다. 지금까지 각 과에서 준비한 행사에 수동적으로 참여해온 학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행사 홍보가 부족했었는데 홍보에 주력 할 것이다.

또한 리포트 돌려받기 캠페인도 진행할 것이다. 다른 학교의 과제물 돌려받기 운동을 듣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문과대생은 자신의 생각이 담긴 리포트를 쓸 일이 많기 때문에 이 캠페인이 훨씬 더 의미 있고, 이를 통해 성적발표 후에 일어나는 혼란도 줄어들 것이다. 궁극적으로 학습권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 문과대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이번 선거의 모토를 '소중한 문과대의 중심이 되는 POINT YOU'로 정했다. 문과대 학생을 중심으로 삼아 그들에게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지은 것이다. 문과대 학생들이 지난 학생회에 대해 실망을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더 신뢰할 수 있고 즐거운 문과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학생들이 애정을 가지고 꾸준히 지켜봐 주었으면 한다.

문서영 기자
syoob@dongguk.edu

이과대

이과대만을 위한 행복공식 만들기

정 이기원(화학3)
부 라인호(생물2)

- 기존 이과대 학생회를 평가한다면.

= 학부제에서 학과로 나눠지면서 이과대 6개 학과들의 단합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 정후보의 경우 올해 부학생회장으로 일해 왔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전 학생회가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과대 모든 학과가 참가하는 새내기 새로배움터와 MT를 다녀오는 등 기회를 만들었지만 그뿐, 관계에 진전은 없었다. 이런 점이 아쉬웠고 그래서 이번에도 함께 하는 이과대를 만드는 데 주력하려고 한다.

- 구체적인 공약은.

= '함께 하는 이과대'를 만들기 위해 축제를 진행하고, 남학생 위주의 종목을 벗어나 다양한 종목을 도입해 모두가 즐겁게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만들 것이다. 올해 아주대 이과대 학술제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성균관대, 아주대와 함께 하는 학술제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지금까지 이과대에는 없었던 '이과대의 밤'을 마련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침체된 소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공연 및 발표회를 개최할 것이다.

이과대 취업률 제고를 위해 3, 4학년에게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려 하는데, 특히 과별로 취업의 특성이 다른 것을 고려해 각각 자료를 마련하고 주요 합격자의 비법 분석을 통한 자료도 제공할 것이다.

명진관 주위에 휴게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진관과 혜화관 주위로 쉼터를 증설할 생각이다. 또한 지난 여름 남자 화장실 개보수 이후로 여자 화장실은 아직 고쳐지지 않아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진행할 것이다.

문서영 기자
syoob@dongguk.edu

경영대

기존 이미지 탈피한 새로운 학생회

정 고기훈(국제통상2)

- 'Innovation 세상을 경영하는 열정, 새로운 경영대 학생회'가 의미하는 것은.

= 시대가 변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의 학생회를 혁신해 나가겠다는 다짐이다. 학생들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존의 정치적인 성향에서 벗어나 학내복지문제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학생회임을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학생회의 기반을 처음부터 쌓아나갈 것이다.

- 주요공약은.

= 이번에 내세운 공약은 학생을 위한 것이다.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복지와 학습에 관한 부분을 우선시했다.

동국관 L동의 창문을 방음창문으로 전격교체 하겠다. 수업 중에 장충단공원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음, 노래자랑 등 과별 행사 소음으로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화장실을 변화시키겠다. 화장실마다 한 곳 이상 비데를 설치하고 음악이 나오도록 설비할 것이다. 잦은 고장과 낡은 모니터로 인해 사용이 어려운 30%가량의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고 건강음료 자판기 등 자판기메뉴의 종류도 다양화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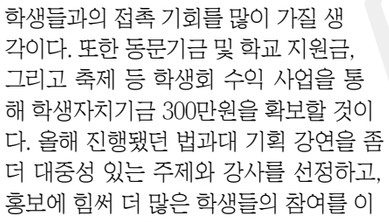
더불어 교수 및 강사 확충을 학교에 요구할 것이다. 경영대는 교수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가 다른 대학 및 우리학교 타 단과대에 비해 많다. 이렇게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학생회실을 개방해 놓겠다. 학생회가 자신과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음을 인식시킬 것이다. 스터디 모임을 할 장소가 없을 경우에도 미리 예약만 한다면 학생회실을 빌려주도록 하겠다.

이윤재 기자
yiyoonjae@dongguk.edu

법과대 기호 1번 VS 기호 2번

제1조 1항 정정당당 학생회



정 신동욱(법2) **부** 성초록(법2)

- '정정당당 학우들의 중심'이라는 모토는 어떤 의미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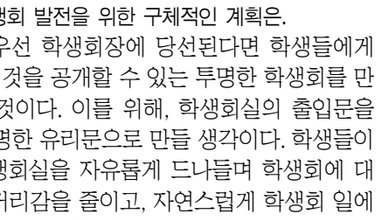
= 우선, '정정당당'은 그동안 법과대 학생회가 기본적인 정책기조로 삼아온 것이다. 우리 역시 이러한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의미에서 선거모토로 정하게 되었다. 흔히들 대학 사회에서 학생을 교육과 대학의 주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동악의 중심에 자리 잡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뜻에서 '학생들의 중심'이란 모토를 내세우게 되었다.

- 선거공약은 무엇인가.

= 학생 자치활동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학생들과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소리함이나 학생회 게시판을 통한 방식보다는 시대에 걸맞게 휴대전화 투표 시스템을 도입하여 학생회 사업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정기적으로 만해관 앞에 작은 찻집을 마련해 학생들과의 접촉 기회를 많이 가질 생각이다. 또한 동문기금 및 학교 지원금, 그리고 축제 등 학생회 수익 사업을 통해 학생자치기금 300만원을 확보할 것이다. 올해 진행됐던 법과대 기획 강연을 좀 더 대중성 있는 주제와 강사를 선정하고, 홍보에 힘써 더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담〉

ssundam@dongguk.edu

편안한 친구같은 학생회 만들기



정 양지훈(법3, 오른쪽) **부** 박설준(법3, 왼쪽)

- 이번 선거 공약 중 가장 비중을 두는 부분은.

= 만해관 내에 법대 도서관을 설립하는 것이다. 거창하게 들리는 것 같지만 사실 평소 잘 이용하지 않는 세미나실에 고시서적 책방을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중앙도서관에 비치된 고시 관련 책들은 거의 2001, 2002년에 출판된 것들이라 현재로선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것들이다. 실제로 법과대 학생들은 전공 관련 서적을 중앙도서관에서 대출하는 경우가 드물다. 때문에 최근에 나온 책들을 비치하여 법대생들뿐만 아니라 고시를 준비하는 타대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자료실을 만들 것이다.

또한 사법고시를 보기 위해선 법학과 전공 수업을 35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지만 우리학교의 경우 계절학기 때 전공 수업을 개설하지 않아 많은 학생들이 정해진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학점 교류를 체결한 타 대학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학과목의 계절학기 수업을 개설하도록 추진할 생각이다.

- 학생회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 우선 학생회장에 당선된다면 학생들에게 모든 것을 공개할 수 있는 투명한 학생회를 만들 것이다. 이를 위해, 학생회실의 출입문을 투명한 유리문으로 만들 생각이다. 학생들이 학생회실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학생회에 대한 거리감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학생회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담〉

ssundam@dongguk.edu

생자대

학생회 역할은 모든 학과를 아우르는 것

정 안주헌(식품자원경제3)
부 심선희(식품자원경제2)

- 선거에 출마하게 된 이유는.

= 현재 생자대는 다른 단과대에 비해 단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생자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학과들의 소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다리역할을 하는 것이 학생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와해되고 있는 생자대를 활성화시키고자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다. 또한 출마 이전에 해온 동국 100년 서포터즈, 과대표 활동 등을 통해 학교에 애정어린 관심을 갖게 됐으며, 그동안 쌓은 경험을 통해 이번 출마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 공약을 설명한다면.

= 생자대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혜화관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 겨울에는 난방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다. 강의실에 난방기를 설치하도록 학교 측에 요구할 것이다. 또한 밤새 연구하는 생자대 학생들을 위해 온수시설이 되는 샤워실을 확충하는데 힘쓸 것이다. 게시판 역시 현대식으로 고치는 등 학생들의 복지시설을 위해 노력하겠다.

더불어 과대표 등에게 지급되는 총장장학이 우수장학과 이중으로 수혜 되지 않는 것에 대해 학생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학교측의 끊임없이 건의사항을 제시해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생자대 학생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단과대 행사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다. 새터를 통해 선·후배가 어색함 없이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 것이며 권농행사, 풍년제의 규모를 확대하고 참여를 이끌어내 자신들이 생자대 학생이라는 것을 각인시키고 자부심을 갖게 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김나리 기자
viki26@dongguk.edu

공과대

"밝고 활기찬 공대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 이순양(기계공3)

- 학생회장에 입후보한 이유는.

= 올 한 해 기계공학과 학생회장을 하면서 느낀 점이 많다. 학생회가 열심히 일을 해도 대다수의 학생들은 알아주지 않는 반면, 이를 알아주고 격려해주는 소수의 학생들에게서 보람과 대표의 책임감을 느꼈다. 더욱 앞장서서 공대 학생들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

- 주요 공약은 무엇인지.

= 원흥관의 첫인상은 분위기가 어둡고 칙칙하다. 공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이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 사항이 많았다. 환경이 학생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명 시설을 개선하여 밝고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겠다.

두 번째로 모든 단과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의 특강과 차별화되어 공대학생의 특성에 맞는 취업, 진로 특강을 개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대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효과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 뿐만 아니라 공과대학 총동문회를 통해 장학금 유치에 힘쓰겠다. 이것을 통해 등록금 한 번 더 내기 운동과 같은 후배사랑을 실천 할 수 있는 동기가 되도록 만들 것이다.

마지막으로 활동적인 성향이 강한 공대 학생을 위해 원흥체전을 개최할 것이다. 이는 오래 전부터 많은 공대 학생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공대인들의 바람을 수용해 체육대회를 추진하겠다.

- 어떤 학생회장이 되고 싶은지.

= 그동안 공대는 학생회의 여러 행사들이 학생들의 무관심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학생회장이 되어 모든 공대학생들의 참여를 이끌고 함께 어울리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다.

최미혜 기자
lmisonara1@dongguk.edu

예술대

함께 하는 '해피예술대' 위해 노력할 것

정 정의행(영화2)

-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 '미앤 유앤 에브리원'을 선거 모토로 정했는데 영화 제목에서 힌트를 얻었다. 이는 나와 너,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한 예술대를 만들어 가는 데 치중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지난 2년 동안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예술대 학생들이 각 과는 잘 뭉치는 반면에 하나로 단합되지 못하는 점이 아쉬웠다.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흩어진 예술대를 아우르는 것이 목표이다. 예술대 축제인 '도시락제'와 다양한 학술대회를 통해 모든 학생들의 만남의 장을 열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학생들이 학생회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기 쉬운데, 학생과 좀 더 가까운 '우리 학생회', '오고 싶은 학생회실'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예술대 내 소모임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상설 대자보나 온라인 뉴스레터를 통해 학생들과의 소통을 원활히 할 것이다.

- 예술대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예술대 학생들은 대학생활 동안 '뭔가를 창조해야 한다'는 부담에 대학의 낭만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대학 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 결국 예술의 근본도 우리가 느끼는 대학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본인의 작품세계에만 국한되기보다는 좀 더 폭넓은 세상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각자가 속한 과뿐만 아니라 각 과 간의 교류를 통해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예술대 만의 문화를 새롭게 창조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학생회를 멀게만 바라보지 않고 예술대 내의 여러 문제를 해결해가는 동반자로 생각해줬으면 한다.

이송이 기자
thispaper@dongguk.edu

사과대 기호 1번 VS 기호 2번

학생들 속에서 '살아있는' 학생회

정 정원철(사회2)

- 구체적인 공약은.

= '사과대를 각별히'라는 모토처럼 사과대 학생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

첫 번째로 사과대 학생이기에 혜택을 받는 '특별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학교 주변 서점과 술집에 사과대 학생들만의 할인제도나 마일리지 제도를 만드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두 번째로는 학생회실을 '119 학생회'로 만드는 것이다. 우산을 비롯한 교양교재, 비상약, 여성용품 등을 비치해 학교에서 생기는 작은 문제들까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세 번째로는 전공강의를 비롯해 사과대에서 개설되는 강의에 대한 강의평가를 학생회자체에서 운영해 강의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 마지막으로 어느 과를 가야 할지 막막해 하고 있는 1학년 학생에게 토론회, 강연회 등을 개최할 것이다. '학부제 연구소'를 운영해 현재 학부제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겠다.

- 사과대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2년간의 학교생활에서 만들고 싶은 학생회의 모습을 그려왔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 도전하고 있다. 학생회가 하는 일은 학생들의 복지시설만 좋게 하는 '서비스센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 학생들을 대변하는 학생회를 만들고 싶다.

김나리 기자
viki26@dongguk.edu

신선한 '변화' 주는 학생회

정 김기현(경행3)

- 지난 선거에 이어 또 다시 출마하게 된 이유는.

= 변화가 없었던 사과대에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사과대 학생회가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면서 강의 환경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등 여러면에서 학교에서 소외됐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면에서 학생회장 존재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됐다. 또한 지난 해 경찰행정학과 학생회 기획부장을 역임하면서 조직의 움직임에 대해 배웠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됐다.

-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무엇인가.

= '人-special'이라는 모토처럼 사과대 학생들이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변화를 이뤄내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선, 학생들의 복지시설마련에 주력하겠다. 현재 '능금사랑'은 열람실의 기능도 휴게실의 기능도 못한 채 애매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어 학생들의 불만이 높다. '능금사랑'을 개선해 열람실의 기능을 강화해 조용한 공간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 더불어 동국관 M동 5층의 빈 공간을 리모델링해 학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이다.

또한 기존의 고리타분한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학생들이 토론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 정해진 답이 없다는 사회과학분야 학문의 특성상 리포트 첨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능률적인 학습을 위해 리포트 첨삭 제도의 시행에 노력할 것이며 이와 함께 각 교양과 전공 관련도서를 학생회에서 구비 및 관리를 해 학습 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겠다.

김나리 기자
viki26@dongguk.edu

외국 장애인 캠프 체험기③

외국의 장애인 캠프 프로그램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체험에 대해 우리학교 UBC 교환학생 이제인 군을 통해 3회에 걸쳐 들어본다. 편집자

도전하라! 당당한 젊은이의 패기로

캠프의 묘미, 여행

캠프의 또하나의 묘미는 주말을 이용한 여행이었다. 캠프기간동안 금요일 오후와 토요일은 휴식일로 모든 스태프들에게 캠프를 벗어나 자유롭게 여행이 허락된다.

나는 약 7번의 여행기회를 이용하여 보스턴의 하버드 대학, 세계 4대 박물관으로 꼽히는 보스턴 박물관을 비롯해서 근교의 여러 도시들을 둘러봤다. 캠프가 종료된 이후에는 비자 만료전까지 개별여행이 가능한데 그 기간동안 뉴욕,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세크라멘토, 요세미티 국립공원, 시애틀을 다녀왔다.

자유와 열정 그리고 꿈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여행하던 도중에는 네덜란드에서 온 선생님 부부를 만났다. 그분들과 2박3일동안 함께 여행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분들이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방향에 대한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했다. 내게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난 더없이 소중한 인생의 선배와도 같았다. 지금도 이메일을 통해 안부를 전해오는 그분들은 지금은 네덜란드로 돌아가서 아이들에게 나와 함께 지낸 요세미티에서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신다고 하셨다.

캠프를 통해 배운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법이라면 미국여행을 통해 배운 것은 자유와 열정, 그리고 꿈이었다. 수백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초강대국으로 성장한 미국, 어쩌면 나의 여행의 목적은 그 해답을 찾는 것에 있었는지도 모른다. 물론 미국은 장애인을 위한 기반복지시설등의 사회안전망이 세계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뉴욕시 어딜가도 만날 수 있는 무기력한 거지들과 공공연한 인종차별과 빈부격차 그리고 불과 몇 블럭을 더 지나가면 볼 수 있는 경제중심지인 월스트리트와 문화의 중심지인 브로드웨이 등 수많은 장단점이 동시에 뒤섞여 있는 복잡한 나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낄 수 있는 점은 새로움에 대한 그들의 열정과 도전이다. 서부의 개척시대가 지난 지 한세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도전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그들을 이끄는 힘은 여기서 오는 것이 아닌가 라는 조심스러운 첫 미국도전기의 결론을 내보려한다. 거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단 몇 주 만에 둘러보고 미국을 안다고 이야기 하기에는 애시당초부터 무리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캠프와 여행을 통해 약 3달간 미국에서 지내면서 느꼈던 순간순간의 느낌과 경험은 내 인생의 방향과 가치관에 영향을 주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당당한 젊은이의 도전

사범대의 특성상 임용고사에 대한 부담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저했던 그 선택에서 나는 다른 길을 선택했고 로버트 프로스트가 이야기했던 그것처럼 나의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다. 입학할 때부터 나의 꿈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다. 물론 지금도 변함없는 나의꿈은 머지않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선생님이 되기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그때, 왜 내게 아무도 경험과 안목이라는 것을 이야기 해주지 않았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비단 이것은 사범대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고 본다. 어떤 분야의 일이든지 획일화된 사회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것은 대학이라는 공장에서 제조한 '메이드인 ○○대학'의 생산품이 아니라 도전과 실패를 통해 스스로 깨달으면서 성숙해진 성숙한 인간임을…. 스스로에게 당당한 젊음이 멋진 것이며, 그런 멋진 젊은이를 우리 사회는 원하고 있다. 혹시 망설이고 있다면 과감하게 불안과 걱정을 털어버리고 도전하는 길을 선택하길 바란다. 진리와 바른길은 오히려 멀지 않은곳에 있다. BE SIMPLE! AND BE CREATIVE!

이제인
(사범대 교육3 휴학중 · 현 UBC 교환학생)

시애틀 항구에서.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문장과 표제 선정에 보다 신경써야

동국대라는 같은 기관에 소속된 대학원 신문사 편집장으로서 학부신문을 평가한다는 것은 '대략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부메랑과 같아서, 학부신문을 향한 비판은 곧 대학원신문에 대한 비판으로 되돌아오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각설하고, 두 가지 사안만 지적하겠다. 지난 1435호 동대신문의 헤드라인은 중선관위 구성을 둘러싼 공방전을 다루고 있다. 2007학년도 학생회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구성조차 원활하지 못한 현재의 상황을 전달하고 있는 이 기사는, 그러나 일관성이 떨어져 읽기에 난해한 느낌이다. 가지런한 문장으로 사태를 일목요연하게 지적 ·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태를 거칠게 나열하고만 있는 까닭이다. 물론 집중력을 갖고 두세 번 정도 정독하면 충분히 의도했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전공서적도 아니고, 신문기사를 두세 번씩이나 정독하는 애독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기획취재면'에 있는 '총학생회 활동평가 설문조사'에 대한 기사도 눈에 띄었다. 무려 2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조사해 정리했다는 것 자체가 빛난다. 말이 200명이지 몇 명 되지도 않는 신문사 인원으로 200명의 설문대상자를 채우는 것은 희생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그런 노고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가 보인다는 사실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가장 핵심적 결론은 '학생들이 총학활동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이지 않았던가. 그런데 왜 이 기사의 표제가 '총학생회 활동에 비교적 만족'이어야만 하는가?

즐거워야 할 토요일에 신문사에 나와 악전고투를 치러야만 하는 '신문사 사람들'의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다. 정해진 시간안에 소수의 인원으로 한 주에 8면, 한 달에 총 32면을 채워야 하는 상황은 고문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가지런한 문장과 세심한 표제선정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토요일의 악전고투는 빛을 발하고 말 것이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사안이 비난이 아닌 생산적 비판으로 읽히길 바라며, 동대신문의 건투를 기원한다.

박우성 (동국대학원신문 편집장 · 영화학과 석사2학기)

금주의 식단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원 향
월 (11/27)	갈비경단&순두부찌개 (2200) 카레라이스 (2000) 손만두국 (2000)	부대지개 (2000) 떡불고기 (2000) 낙지콩나물비빔밥 (2200)	된장찌개 (3200) 영양굴밥 (3800) 제육볶음 (3500)	김치손만두국 (2300) 순살돈가스정식 (2900) 사골우거지탕 (2500)
화 (11/28)	닭곰탕 (2000) 불고기소스볶음밥 (2200) 콩나물밥 (2000)	갈비탕 (2500) 제육김치 (2000) 안동찜닭 (2000)	된장찌개 (3200) 만두전골 (3500) 고등어김치조림 (3800)	탕국 (2300) 평양식비빔밥 (2900) 얼큰수제비 (2500)
수 (11/29)	짬뽕국밥 (2000) 제육고추장덮밥&계란후라이 (2200) 꼬치우동백반 (2000)	쇠고기국밥 (2000) 닭갈비소스볶음밥 (2200) 깐풍육 (2000)	된장찌개 (3200) 함박스테이크 (3800) 비빔밥 (3500)	열무된장국 (2300) 닭조림 (2900) 간자장덮밥 (2500)
목 (11/30)	김치불고기비빔밥 (2200) 간자장밥 (2000) 닭도리탕 (2000)	순두부찌개&햄구이 (2000) 하이라이스 (2000) 베이컨김치볶음밥 (2200)	된장찌개 (3200) 육개장 (3500) 삼치구이 (3500)	건새우미역국 (2300) 오무라이스 (2900) 뼈해장국 (2500)
금 (12/1)	비엔나케찹볶음 (2000) 참치캔볶음밥 (2000) 오징어볶음&소면 (2000)	닭개장 (2000) 탕수육 (2000) 감자탕 (2000)	된장찌개 (3200) 참치전골 (3500) 카레라이스 (3500)	쇠고기콩나물국 (2300) 뚝배기불고기 (2900) 오징어야채덮밥 (2500)

열린글터

독자여러분의 글과 사진을 기다립니다.
동대신문은 독자 참여 확대를 위해 독자여러분이 직접 찍은 사진이나 만화, 만평, 4매 분량의 글 등을 게재합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www.dgupress.com **E-mail** dgupress@dongguk.edu
TEL : 2260-3491~2 **FAX** : 2279-1270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되자

4년째 다니는 평범한 학생이다. 얼마 전 학교에서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 하려고 한다. 1주일 전 명진관에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를 봤다. 평소와 다름없이 지나가려는데 어딘가에서 소리가 들려 돌아보았다. 어떤 여학생이 아주머니께 "아주머니 이것 좀 치워 주세요"하고 휑하니 돌아가는 것이었다.

별거 아니라고 보면 별거 아닌 것이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간단히 말해서 '4가지가 부족하다'라고 느꼈다. 혹 오해할 소지가 있겠지만 내가 말하려는 네 가지는 '인, 의, 예, 지'를 뜻한다. 나는 이 모습을 보고 친구들과 그 여학생의 버릇없는 행동에 대해서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 순간 아주머니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내가 비난한 그 아이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분명 인의예지를 갖춘 사람이라면 그 여학생의 행동을 보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아주머니를 도와야 하는 것이 더 옳은 행동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부끄러운 행동을 했음에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남을 비난하는 것이 우리가 인의예지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우리는 부끄러운 것을 감추고 좋은 모습만 남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러나 내가 타인의 모습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생각해보면, 좋았던 모습은 잊어도 어떤 사람의 부끄러웠던 모습은 잊지 않고 기억해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식으로 판단했던 것 같다.

그러나 분명 우리 기억 속엔 멋진 사람이라고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다. 과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기억에 멋진 사람으로 남아 있는 것일까? 단순히 내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부끄러운 행동을 하였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수정하였기 때문에 멋진 사람으로 기억된 것이라 생각한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군자의 첫 걸음이다'라는 격언이 있다. 부끄러운 행동을 하였을 때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 인의예지를 갖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이 아닐까.

한승우 (불교대 불교4)

이야기 동국 100년史

대학종합병원 건립의 꿈 실현

⑰ 의과대학 설립과 동국대학교 병원 개원

동국대학교병원 + 한방병원 개원

의과대학 설립은 경주대학에 한의예과가 신설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의과대학 설립은 대학의 외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성장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이에 학교당국과 불교계는 1980년 초부터 의과대학 설립에 전력을 기울여 1985년 11월 5일 문교당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획득하였다. 이에 따라 1986년 3월 의예과 첫 신입생이 입학하였다. 초기에는 의예과가 정식으로 개설되지 않아 일반교양과목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졌으나 1987년 3월 의예과 교학과가 신설되면서 전담 교수가 부임하였다.

의과대학이 신설되자 대학종합병원 건립의 꿈도 점차 무르익어갔다. 초기에는 경주, 포항, 강남, 분당 지역에 중형 병원을 운영하였으나 대학병원으로서의 위상은 갖추지 못하였다. 이에 우리학교는 대학종합병원 건립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1994년 12월 28일 동국학원 이사회 승인을 얻어 1998년 2월 23일 일산병원의 건축 허가를 받았다. 이어 1999년 10월에 공사에 착수하여 2002년 9월 27일에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그러나 재원 확보가 쉽지 않아 병원 개원은 몇 차례 고비를 맞으며 계속 지연되었다.

그러다가 2003년에 정대 스님이 동국학원 이사장에 취임하고, 새로운 총장에 홍기삼 교수가 취임하면서부터 개원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우리학교는 2005년 8월 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불교병원개원추진단을 발족하고, 전문 의료진의 충원과 병원전산시스템 구축 등 차별화된 경영전략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병원장을 선임하고 예비 진료기간을 거쳐 2005년 9월 27일 정식 개원하였다.

'동국대학교병원+한방병원'으로 명명된 일산병원은 연건평 2만 7천여 평으로 지상 12층 규모에 외래진료동 · 입원병동 · 중앙지원동 · 영안동 등 4개 동으로 지어져 경기 북부지역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양방 32개와 한방 8개의 진료과목, 그리고 100여개의 한방 병상을 포함하여 총 1천여 병상을 구비한 일산병원은 예방 · 요양 · 건강관리까지 하나로 연결되는 종합의료체제를 갖추었다. 또 국내 최초로 양방과 한방을 협진할 수 있는 양 · 한방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다른 병원과의 차별화를 위해 특화된 전문센터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최신의료장비를 구축하였다. 현재 일산병원은 One-Stop 의료서비스 체계와 최첨단 의료시설을 바탕으로 수도권 북부지역의 대표적인 의료기관으로 성장하였다.

이 용 범
소설가 · 동국 100년사 대표 집필자

독자 사진첩

돌탑

이 돌탑을 쌓으며
작은 소망을 빌어봅니다 .
모든 동악인의 바람들이
이루어지길.

- 엄기석 (문과대 사학1)

보리수

나를 '차별화' 시킬 때

지금은 비록 기둥을 받치던 주춧돌만 덩그렇게 남아있지만 경주 황룡사터에는 무려 80여 미터에 이르는 목조9층탑이 있었다.

이 탑은 중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자장율사의 권유로 645년에 세워졌는데 불국토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일본 · 중국 등 주변 아홉 나라로부터의 시달림을 막기 위한 호국적 성격도 지녔다. 이 탑은 선덕여왕이 선택한 백제의 장인 아비지가 만들었다. 아비지는 탑을 만드는 도중 자신의 나라 백제가 망하는 꿈을 꾼 뒤 고뇌에 빠지기도 하는데, 적국이나 다름없는 신라의 호국 사업을 주관한 그의 마음을 알 듯하다.

김대성은 불국사의 석가탑을 세우기 위해 백제의 옛 땅에서 석공 아사달을 모셔왔다. 아사달의 어여쁜 아내 아사녀는 남편이 그리워 서라벌까지 와서 불국사 남서쪽에 있는 못에 완성된 탑이 비칠 날을 학수고대하였다. 그러나 끝내 탑은 물에 비치지 않았고 기다림에 지친 그녀는 그만 못에 몸을 던지고 말았다. 이로인해 석가탑은 '무영탑'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고, 그 못이 지금의 '영지'이다.

황룡사탑과 석가탑에서 사람을 제대로 쓴 선덕여왕과 김대성의 '선택'을 읽을 수 있다.

졸업을 앞둔 예비사회인에게 취업은 '나의 운명'이며 영순위의 관심사이다. 그러나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나를 빌려 줄 수 있는 아비지 · 아사달과 같은 '차별화'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선택의 폭은 달라진다.

먼저 21세기 오늘, 신라가 선택한 아비지나 아사달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가. 지금 자신을 냉철히 돌아볼 때이다.

정 우 택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

변화하는 학생복지실 학생과

일반학생 복지 우선하는 역할정립 필요

어느 학과 학생회장에게 학생복지실 학생과에서 호출이 왔다. 이유는 학교의 허락 없이 학과행사 차원에서 주점을 열었다는 것. 권고만 듣고 돌아오는 선에서 끝났지만 이를 알게 된 학생들은 학생과의 역할이 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10월부터 시행된 게시물 규정 등의 일들이 '의사소통 발언의 기회를 막는 학교의 과도한 규제로 볼 것인가' 또는 '학교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했지만 그동안 못했던 일을 시작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대립되고 있다.

또한 현 총학생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필요 이상의 친밀한 관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학생과란 학생들과 학교가 소통하는 창구이며 학생과 학교가 서로의 생각을 읽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갖는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각 부서로 재요청해 둘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로 서로의 요구를 모두 절충 ·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생과의 일이다.

총학생회란 학생들의 자치기구이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임무를 맡은 단체이다. 올해 들어 빈번히 나오는 의견으로는 학생과에서 학생들과 총학생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학생과에서 여태껏 학생들의 항의를 피하기 위해 수행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부터 수행하는 것에 대해 규제라고 느껴서는 안 된다"며 "이전의 물리적인 행위로 변화를 유도했던 학생회와 학생과 보다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현재의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작년 총학생회 구본훈(국교4) 비대위원장은 "총학생회가 학교에 너무 의존하는 것 같다"며 "학생복지에 대해 노력한 점은 인정할 부분이지만 학교의 요구에 따르고 그저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요즘 학생과에서 학생들에게 가하는 제재는 현재 민주주의 사회의 대학에서 있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로 의견을 달리하더라도 학생과와 총학생회가 일반 학생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그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일반 학생들의 복지 개선이라는 목표를 담고 있어야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학생과의 업무는 규제나 관리를 통한 방법이 아닌 올바른 학생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 선에서 모색돼야 한다.

또한 이를 계기로 일반 학생들과의 소통을 이뤄내고 학교를 개선해 나가며 일반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문서영 기자
syoob@dongguk.edu

"참회합니다" … 정각원(원장=박종호)이 지난 22일 체육관에서 산하학교 수계식을 열었다. 향불로 팔을 태우는 연비의식에서 학생들이 참회진언을 하면서 스님들에게 연비를 받고 있다. 이윤재 기자
yiyoonjae@dongguk.edu

VHS 14,000점 기증한 김용만대표 인터뷰

다양한 안목 가지는 기회되길

지난해 7월 중앙도서관에 영화관련 VHS를 14,000점 기증했던 대형 영화매체 유통업체인 Kim's video & music 대표 김용만 씨가 한국을 방문했다. 우리학교를 방문한 그에게 학교 측은 지난 21일 감사패를 전달했다.

- 중앙도서관에 14,000점의 비디오를 기증하게 된 계기는.

= 영화를 좋아하고 비디오와 음반 판매점을 여러 개 운영하면서 모은 것들 중 2001년 서울예술종합학교에 15,000점을 기증하고 남아있던 것이 14,000점 정도였다. 이를 어느 곳에 기증하면 유용하게 쓰일지 고민을 하다가 한국 영상 분야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평을 받는 동국대학교에 기증하기로 했다.

단, 모든 동국인 뿐만 아니라 영화를 사랑하고 자료를 찾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활용하는 조건으로 기증하게 됐다.

- 기증한 자료의 종류와 세부적 내용은.

= 영화를 비롯해 다큐 등 모든 장르를 총 망라한 자료이다. 서울예술종합학교에 2001년 기증한 것을 자료화 하는 데만 5년이 걸렸다고 한다.

요즘 미국의 유수 대학에서는 책등의 인쇄자료 중심에서 벗어나 미디어 자료를 활용하는 추세이다.

이번에 기증한 자료도 뉴욕대에서 교수와 학생들이 사용하는 자료만큼이나 유용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기증한 자료에 대한 정리가 끝나고 부족한 자료가 있다면 추가로 기증을 할 예정이다.

-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학교에 다닐 때에 사고를 많이 쳐보고 실수도 많이 해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실수를 많이 해본 학생이 성공한다. 실수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학생들이 열린 사고를 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았으면 좋겠다.

문서영 기자
syoob@dongguk.edu

연구비 중앙관리 처리서식 개정

연구비 중앙관리개요 및 연구비 처리서식 사용방법 안내 세미나가 지난 17일 3시부터 3시간동안 교수, 대학원생, 행정직원, 조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그동안 꼭 받아야 했던 서식이 빠지거나 자료를 2중, 3중으로 받게 되기도 했던 기존의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연구처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 관리 규정의 개정과 함께 연구비처리서식의 변동을 추진한 것이다.

연구비 관리규정 및 시행세칙의 집행원칙은 '연구비 집행에 있어서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이다. 범용성 기자재 및 가전제품과 경비 등은 지급이 불가하다. 이와 함께 △유효영수증 △인건비 지급 △인건비 자료 취합 △여비 신청과 정산 △유인물비 △참고문헌구입비 △회의비 등의 기준이 제시 되었다.

이와 함께 연구비처리서식이 바뀌었으며 기존의 서식도 12월 한달간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서식을 이용해야 한다.

'용궁대전' 멀티콘텐츠 23일 제작발표회 가져

우리학교 문화콘텐츠개발센터(센터장=이종대 · 영상대학원)가 지난 23일 '용궁대전' 멀티콘텐츠 제작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콘텐츠는 모바일소프트웨어 전문회사인 (주)버추얼다임,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로딩과 산학협정을 맺고 Wibro용 게임과 TV방영용 애니메이션을 공동 제작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바다 속 상상세계의 원형 콘텐츠 개발' 과제에서 산출된 원천소스를 상용화된 콘텐츠로 제작하는 것이 목표이고 2007년 4월에 완료해 하반기 중으로 소비자들에게 서비스할 예정이다.

동악로

방향상실

"너 이번에 전과 할거야?"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신청해볼까?"

올해 초 전과제도가 변경되면서 이전보다 전공변경의 기회가 늘어났다.

지난 10일 전과시행에 대한 공지가 게시되면서 각 단과대학 행정지원실에는 전과에 대한 문의전화가 늘어났다.

전과제도는 원래 자신의 학과 공부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의 대학입시는 학생의 적성보다는 소위 '장판지'라 불리는 진학 배치표에 의해 이루어지다 보니 진학 후 전공이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아 방황하는 학생들이 많다.

실제로 지난 학기 13,007명의 재학생 중 성적 경고를 받은 학생 수는 729명에 이르며, 이들 중 성적경고 누적으로 제적을 당한 학생은 47명이다.

때문에 학교는 정작 전과를 해야만 하는 학생이 성적제한 때문에 전과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없애기 위해 올해 초 성적제한을 폐지하고 각 학과별로 구술시험의 비중을 늘렸다. 이처럼 유연성 있는 전과제도의 시행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좋은 취지로 변경된 전과제도였지만 이전과 또 다른 부작용을 낳았다. 자신의 전공에 특별한 불만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 쉽게 전공변경을 신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전공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학생이라도 전과하려는 학과의 교육과정이나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한 사전정보 없이 단순히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에 전과신청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번에 전과신청을 준비하는 한 1학년 학생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전공이 맞지 않아 전과를 하려고 하지만, 딱히 원하는 전공이 있는것도 아니다"라며 "많은 학생들이 전과를 하는 사과대를 생각하고 있을 뿐 어떤 전공을 선택할 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했다.

고교시절 획일적인 입시제도에 의해 '결정당한' 전공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또 다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담〉
ssundam@dongguk.edu

회전무대

학림탕

○…초겨울 학림관에서 학생들은 더위사냥에 여념이 없다는데.

무슨 말인고 하니, 학림관 강의실의 방열기를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뜨거운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한곳에서 건물전체의 온도를 조절하고 있는 만큼 강의실 온도를 자주 확인해야 하지는 않을는지.

이에 한 외부인 왈, "학림관에 찜질방 있다면서요(?!)"

집단투정

○…"우리 아이의 권리, 엄마가 지켜주겠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3차례 이상 연가(年暇)투쟁에 참가한 교사 600명을 부적격 교사로 규정하고 민 · 형사상 고발을 하겠다고.

연가를 써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의무를 먼저 다해야 하지는 않을는지.

이에 한 학생 왈, "우리도 학습권리 투쟁위한 '연가'가 필요해"

돈의 노예

○…지금 교사들은 염불엔 관심 없고 잿밥에만 관심 갖는다는데.

내용인 즉, 일부 고교 교사들이 교과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교과서의 내용과 질보다는 자신에게 떨어지는 떡값을 보고 결정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돈의 노예가 되는 모습보다는 학생들을 위해 일하는 청렴한 스승의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는지.

이에 떠오르는 한 노래자락이 있으니, "스승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미운오리새끼

○…우리학교는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데.

출판부의 보관 창고는 포화상태고, 실무 직원도 2명 뿐이라 질 좋은 책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고.

출판부를 학교차원에서 지원해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게 하고, 평생 우리학교의 얼굴로 남아있을 책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해 미래의 학교이미지에 기여하게 해야 하지 않을지.

이에 본 회전 무대자 왈, "밑 빠진 장독에서 새 나가는 학교 위신(?!)"

동국대학교 2007학년도 정시모집 입시설명회 및 논술특강

1. **행사내용 :** 2007학년도 동국대학교 입시 설명회 및 논술특강

2. **개최 일시 및 장소 :** 2006. 12. 9(토) 14:00~ / 동국대학교 본관 중강당

3. **행사일정 :** 14:00 ~ 16:00(2시간)
   가. 2007학년도 동국대학교 입시설명회
   - 동국대학교 입학처장 이상일 교수(20분)
   나. 논술특강(인문계)
   - 박명호 교수(정치외교학과, 본교 논술 출제위원)(50분)
   다. 2007학년도 정시모집 주요대학 지원전략
   - 김용근 종로학원 평가이사(40~50분)

4. **대상 :** 서울 및 수도권 소재 고3 수험생 및 학부모 약 700명

※ 행사 당일 주차장 혼잡이 예상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외무·입법·지방고시 PSAT 대비 제3차 모의고사 공고

2007년도 행정 · 외무 · 입법 · 지방고등고시 PSAT 대비 제3차 모의고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험일시 :** 2006. 12. 2(토) 10:00~15:20

2. **시험장소 :** 만해관 B167

3.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구 분	시 험 시 간	시 험 과 목
시험요령교육	09:40~10:00(20분)	08:40까지 입실
제1교시	10:00~11:20(80분)	언어논리영역
휴식 · 입실	11:20~11:40(20분)	11:40까지 입실
제2교시	11:40~13:00(80분)	자료해석영역
점 심	13:00~14:00(60분)	14:00까지 입실
제3교시	14:00~15:20(80분)	상황판단영역

4. **응시자 안내사항**
   가. 모의고사 접수기간 : 2006년 11월 23일(수)~11월 30일(목)
   나. 모의고사 접수처 : 만해관 4층 고시반 행정지원실 방문접수 또는 전화접수 가능 전화접수처 (만해관 행정지원실 ☎ 2260-3571)
   다. 답안표기에 필요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필히 지참

행정 · 외무 · 입법 · 지방고시 고시지도위원회

사이버 뉴 토익 강좌

▶ **접 수 :** 11월 27일 ~ 12월 8일

▶ **수 강 료 :** 각 2개월 코스, 40,000원 (단, 8번은 20,000원)

▶ **강좌시작 :** 06년 12월 11일

▶ **강좌종류 :** 8개 과목
1) 김대균의 Tycoon 기초토익 (Step 1)
2) 박원 & 김소영의 New 기초 토익 백서 (Step 1)
3) 박원 & 김소영의 New 기초 토익 백서 (Step 2)
4) 유수연의 토익스타 만들기 (Step 1)
5) 유수연의 토익스타 만들기 (Step 2)
6) ETS TOEIC Test 김대균의 전략특강 (Step 1)
7) ETS TOEIC Test 김대균의 전략특강 (Step 2)
8) 김대균의 TOEIC 문법 & 어휘 마침표 (Step 1)

▶ **수강방법 :** 접수 후 http://www.cattoeic.com/eslscat/dgu 에 접속하여 온라인 강의 시작.

▶ **접수문의 :** 방문 접수 후 은행 수납 or 이메일 접수 후 은행 수납 (iie@dongguk.edu)
수강료 납부 계좌 : 신한은행 : 140-006-754830 / 예금주 : 동국대학교 국제교육원
※ 환불 : 개강 전 100% 환불,
개강 후 3일 이내 80% 환불,
개강 3일 후 환불 불가

▶ **이용안내사이트 :** https://www.cattoeic.com/eslscat/catsample.asp

▶ **샘플강좌사이트 :** ① 김대균의 Tycoon 기초토익(1Step)
http://www.cattoeic.com/eslscat/vodsample.asp
② 박원 & 김소영의 NEW 기초 토익 백서(2Step)
http://www.cattoeic.com/eslscat/vodsample.asp
③ 유수연의 토익스타 만들기(2Step)
http://www.cattoeic.com/eslscat/vodsample.asp
④ ETS TOEIC Test 김대균의 전략특강(2Step)
http://www.cattoeic.com/eslscat/vodsample.asp
⑤ 김대균의 TOEIC 문법&어휘 마침표(1Step)
http://www.cattoeic.com/eslscat/vodsample.asp

국 제 교 육 원

❶~❸ 인사동 쌈지길 '쌈지, 앤디 워홀을 만나다'
❹ 청계천 '스프링'(클래스 올덴버그와 쿠제부인作)
❺ 충무로 신세계 백화점 '과일나무'(최정화作)

미술관, 담장을 허물다

일상생활 깊숙히 녹아든 공공미술 … 대중과의 소통에 긍정적 역할

더 이상 미술작품은 어렵사리 방문한 미술관에서만 접할 수 있고 평범한 우리 일상이라고 하기에는 멀고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길을 걷다가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곧잘 맞닥뜨리는 것이 미술품이다.

이제는 '공공미술'이라는 이름이 귀에 익숙한데, 공공미술이란 대중에게 노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 · 전시하는 것을 일컫는다. 전통적인 미술이 사적미술인 반면 공공미술은 대중과 소통하며 누구나 찾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금 이렇게 곳곳을 뒤덮은 미술품들의 상당수는 건물에 미술을 입힌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건축물 미술장식제도'에서 비롯됐다. 이는 연면적 1만㎡ 이상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공사비의 1%를 공공미술작품설치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물 미술장식은 공공미술의 가장 초보적 단계로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아 대다수 지식인들이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아직 성숙한 문화적 의식이 마련되지 못한 까닭에 건축주가 미술품을 단순히 법을 통과하기 위한 과정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상업 화랑이 시장에서 브로커 역할을 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크기 · 거리 · 위치 등이 적절히 고려되지 않은 저급한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때문에 공간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작가 선정을 포함한 전 과정이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주체가 직접 투자하지 않고 민간 건축주에게 전적으로 맡겨버리는 점도 문제이다.

그런가하면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도 공공미술 컨셉의 전시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인사동 갤러리 쌈지의 '쌈지, 앤디워홀을 만나다' 전시 역시 여기에 해당된다. 쌈지길 내의 광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가운데마당에는 50여개의 우산이 쏟아져 내린다.

❺

이와 관련해 갤러리 쌈지의 양옥금 큐레이터는 "전시기획안에서 공공미술의 성격을 염두에 두고 있고, 이는 쌈지길의 계단형 건축 공간이 지닌 개방성과도 연결된다"며 "현대미술이 많이 난해한데, 소통의 방식을 공공미술에서 찾고 있어서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많이 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친구들과 한창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던 김수순(오산대 호텔조리2) 씨는 "하늘을 우산으로 표현한 아이디어가 독특하다"며 "일부러 미술관을 찾지 않아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서 좋다"고 밝혔다.

공공미술이 미술시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 기대하는 요즘, 새로운 공공미술에 대한 시도와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서울시는 2010년까지 도심 곳곳에 거리벽화와 입체미술 작품 160여개를 설치하는 '도시 갤러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문화관광부 역시 공공미술프로젝트 '아트인시티 2006' 추진을 통해 전국의 11개 지역의 생활환경을 바꿔나가고 있다. 아트인시티 서울 낙산프로젝트의 경우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총 3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점이 눈에 띈다.

도심 속 삭막한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바꿀 수 있는 미술이, 공공성을 획득하기 위한 다양하고 꾸준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다행스럽다. 최범 공공미술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은 "공공미술은 특별한 것이면서도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것과 평범한 것 사이에 놓여있다"며 "최근 부쩍 높아진 관심은 시민사회가 성숙하고 문화민주주의가 진전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아직 미술과 공공미술의 전통이 깊지 않아서 대중들의 미술 경험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 앞으로 공공미술이 그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은미 기자
eunmi@dongguk.edu

대학내 성문화 기획(3)

상호간 배려의 중요성

우리 대학에서도 다양한 성문화가 존재하며 거기에 따른 문제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럴 때 대학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 나아가야 하는지 3회에 걸쳐 연재해 본다.
편집자

대학생은 입시로 인한 부담과 학교생활에 있어서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신의 뜻에 따른 자유로운 행동과 이성교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고등학생과 별다른 차이가 없이 여전히 올바른 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오해를 받거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함께 일상생활에 있어 행동상의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대학생은 자신의 몸을 소중히 생각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소홀하지 말아야 하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진정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온전히 책임을 질 수 있는 행동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각자의 노력들이 한데 모여서 대학의 성문화를 남녀간의 생물학적 차이는 인정하더라도 사회적인 차별이 없는 양성평등적이고 개인의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인식하에 우리 대학에서 올바른 성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몇 가지의 생각들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대학생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다.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대학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라는 특권을 잘못 해석하여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자신만의 무제한적인 방종으로 흐를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는 불상사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행동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폭력이다.

성폭력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동의나 허락이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적인 성적언동을 하는 것으로 이는 경우에 따라 상대방의 몸과 마음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폭력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성폭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포괄하는 범주가 훨씬 넓고 광범위하며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속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성폭력을 폭넓게 해석하면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음란한 말이나 눈짓, 정신적인 학대도 포함될 수 있다.

여하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성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과 일시적인 충동에 따라 상대방에게 성적인 공격행위를 가하는 것은 자신의 기분과 입장만을 최우선으로 삼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이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학문탐구와 직업선택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인식되는 대학생활은 학생과 교수, 교직원 등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생활하는 캠퍼스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대학이라는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학생과 학생 간, 교수나 교직원과 학생 간에 발생하는 성폭력을 비롯하여 성희롱을 유발하는 학내환경과 대학문화를 모두 포괄한다. 대학 내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와 가해자의 학내 위치, 권한에 따라 학생 성폭력, 교수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 직장 내 성희롱 등의 다양한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여하튼 대학이라는 진리탐구의 신성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여간해서 피해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신분상의 불이익과 학내권력차이로 절망에 빠진 피해자가 감히 용기를 내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성폭력상담소를 학교당국은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랑스럽고 무한한 미래발전의 잠재력을 가진 대학생들은 아무리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사회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의사결정권을 무시하는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대학당국은 성에 관련된 여러 문제행동들이 이성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와 자기중심적인 판단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성교육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몸에 익히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학내규칙들을 마련하고 모든 구성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우리 대학생들은 자신의 자유로운 생각과 행동이 소중한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의 성적 의사결정권을 존중하는 자세가 대학사회에서 성적인 차별이 없는 올바른 성문화를 확립하는 첫걸음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 주기 바란다.

그리하여 남녀의 구분이 없이 서로를 배려하는 밝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모든 대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마음껏 펼쳐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곽 대 경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본교 성윤리위원회 위원